

第 63 回 1 級 : 聞きとり・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7 문장의 일부를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①(기구한 삶이었지만) 하루하루를 ②(뚝심으로 버텨 냈다.)
→ ①(数奇な人生だったけど)一日一日を②(根気強く耐えぬいた。)
- 2) ①(역정을 내시면서도) 내심 ②(슬깃해 하시는 눈치였어.)
→ ①(怒りながらも)内心②(興味を持っている様子だった。)
- 3) ①(호락호락하진 않았지만) 끝끝내 ②(출연 섭외를 성사시켰다.)
→ ①(簡単ではなかったが)ついに②(出演依頼を成功させた。)
- 4) 업계에서의 ①(갑질 논란으로) 여론의 ②(뭇매를 맞았다.)
→ 業界での①(パワハラの問題で)世論の②(袋叩きに遭った。)

8 문장의 일부를 한글로 받아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①(속물적인 민낯을) 드러내더니 급기야 ②(헌신짝 버리듯) 내팽개치고 떠나 버렸다.
- 2) ①(헛물만 켜 셈이라) 속은 ②(쓰라렸지만) 참을 수밖에 없었다.
- 3) ①(늙수그레한) 중년 남자가 ②(신세타령)을 하고 있었다.
- 4) 작가의 상상력이 ①(덧입혀진) 작품으로 결말은 ②(오롯이)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

第 63 回 1 級 : 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.
→ 今すぐ路頭に迷うことになったのに、そんなの意味ないだろう。
- 2)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 소리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아요.
→ 心ここにあらずだから、そんな話は全然響かないと思います。
- 3) “너도 양반 되긴 글렀구나, 갑자기 나타나서 식겁했잖아”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다.
→ 「噂をすれば影と言うけど、急に現れてびっくりしたじゃない」と大げさに振る舞った。
- 4) 예년에 비해 작황이 부진한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.
→ 例年に比べ作物の収穫状況が思わしくないせいで、生活物価が上昇傾向である。

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. 답은 하나만을 한글로 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口が堅く、陰口も言わないが、何事も三日坊主なのが玉に瑕^{きず}だ。
→ 입이 무겁고 험담도 안 하지만 뭐든 작심삼일인 게 옥에 티다.
- 2) 「品薄はデマ」と分かっているけど買いためする心理はなんだろう。
→ 품귀 현상이 헛소문인 줄 알면서도 사재기하는 심리는 뭘까.
- 3) てっきり俺がクビになると思っていたのに、肩を叩かれたのは課長だった。
→ 당연히 내가 해고될/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한 건 과장이었다.
- 4) コメントにイイネがついたからお気に入り保存しておいた。
→ 댓글에 좋아요가 찍혀서/달려서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었다.